

“반갈샷’ 인증샷 찍으세요”... 편의점업계, 크림빵 대전 활활

우유 함량 높은 고퀄리티 상품 붐을 CU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 GS25 이탈리아 전통빵 ‘마리토쵸’ 이마트24 크림 활용 디저트 확대

편의점 업계에 ‘크림빵’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3개사가 크림 디저트를 내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크림빵 마니아들은 ‘반갈샷(빵을 반으로 가르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며 인증샷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연수 이마트24 디저트 식품팀 파트너는 “작년부터 카페를 중심으로 사이즈가 크고 내용물이 풍부하게 들어간 디저트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입안 한 가득 크림을 베어 물 수 있는 크림 디저트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비주얼로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편의점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반갈샷’ 크림빵들. 풍부한 크림이 든 빵을 반으로 갈라 달콤함을 만끽하는 즐거움이 있다. /SNS캡처

반영해 기존 양산빵에서 많이 쓰는 식물성 크림 대신 우유 함량이 높은 우유 생크림, 바닐라빈을 첨가한 커스터드 크림 등 퀄리티 높은 크림을 풍부하게 넣은 다양한 디저트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림빵 열풍의 시작은 지난 1월 CU가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본격 전개됐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빵으로는 비교적 비싼 2600원의 가격으로 출시됐으나 가격적으로 생크림을 가득 채워 반갈샷 유행을 선도했

다. 연세우유 크림빵은 출시 직후부터 CU 역대 디저트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6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900만개를 돌파했다.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첫 상품 출시 후 팔+크림, 초코크림, 메론크림빵 등 후속 시리즈가 출시됐고, 팔+크림빵은 발주 제한까지 걸렸다.

GS25도 지난 7월 출시한 크림빵 ‘마리토쵸(Maritozzo)’를 출시하고 30일 만에 30만개를 팔아치우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마리토쵸가 생크림빵 카테고리 전체 매출을 견인하면서 현재 생크

림 상품 5종 매출이 8월 첫 주 대비 마지막 달 256.2%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리토쵸는 이탈리아어로 남편을 뜻하는 마리토(Marito)에서 파생된 말로 풍부한 생크림 속에 반지를 숨겨 프로포즈 하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GS25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브레디크’는 출시된 마리토쵸에 힘입어 전체 빵 카테고리에서 21년 2월 13%에 불과하던 비중이 지난달 46%대까지 올랐다.

이마트24는 올해 크림을 활용한 디저트 상품 4종을 선보였다. 이들 상품은

디저트 상품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기준 디저트 상품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올해 출시된 크림 디저트다. 이마트24는 올해 초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인 마리토쵸를 콘셉트로 ‘생크림 은브리오쉬’를 출시한 데 이어 우유생 크림빵도넛, 커스터드 크림빵도넛을 선보였고 대구지역 3대 유명 베이커리 중 하나인 근대골목 단팥빵과 컬래버해 크림단팥빵까지 출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동아제약, 바르는 치질치료제 ‘치오맥스’ 출시

가려움·부종·출혈 등 완화 효과

동아제약은 바르는 치질 치료제 ‘치오맥스’ 연고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치오맥스 연고는 치열 및 치핵의 아픔, 가려움, 부종(부기), 출혈의 일시적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는 바르는 치질 치료제다.

치오맥스 연고에는 치핵 부위를 마취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리도카인,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초산토포페롤, 혈관수축 효과로 치핵 부위의 부종과 출혈을 억제하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항염증 및 가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는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

특히, 첨가제를 추가해 통증 완화 주 성분인 리도카인의 약물 피부 투과도를 높여 빠르게 통증을 완화하고, 통증 완화 지속력을 향상시켰다. 해당 연구의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다.

치오맥스 연고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티굴릭소스타트’ 글로벌 3상 착수

(통풍신약)

3000여명 환자 임상 참여 전망 2028년 글로벌 시장 판매 계획

LG화학이 통풍신약 ‘티굴릭소스타트’의 두번째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상 환자는 전 세계 3000여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LG화학은 1일 미국FDA에 자체개발 통풍신약 티굴릭소스타트의 추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 LG화학은 위약 대조군 시험계획을 신청한데 이은 두번째 임상 3상이다.

이번 임상은 성인 통풍 환자 2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국, 유럽지역 등의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통풍 1차 선택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과 대조해 12개월 장기 복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신청한 위약대조군 시험계획의 모집 환자 수를 합하면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티굴릭소스타트 최종 임상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복용 4, 5, 6개월째 측정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 비율로 설정했다. 2차 평가지표는 복용 4, 5, 6개월째 측정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5mg/dL 미만인 환자 비율, 복용 6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통풍 발작을 1번 이상 경험한 환자 비율, 12개월 시점 통풍 결절이 1개 이상 완전 소실된 환자 비율 등으로 설정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선택 치료제 지위를 확보, 글로벌사업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티굴릭소스타트는 요산 생성 효소 ‘잔틴 옥시다제(XO)’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로, LG화학은 임상 2상 시험 결과 신속하고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를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LG화학은 오는 2027년 미국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2028년부터 티굴릭소스타트의 글로벌 시장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비만인구 증가로 2019년 3조원(26억 달러)에서 2027년 5조원(43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11번가 애보트 코로나 검사키트 판매

11번가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의 판바이오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최초로 판매한다. 유럽을 비롯해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바이오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는

유럽 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 결과 자가검사키트 중 97.4%의 뛰어난 민감도(양성 확인률)를 보였다.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감염 여부를 15분 후 확인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에크모 재활 중증 코로나 환자 예후 향상”

이대목동병원 에크모 재활치료 연구 발표 신체 기능저하 부작용 호전... IJRR 게재

자가 호흡이 힘든 중증 코로나19 환자라도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사례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팀은 ‘코로나19 격리 환자의 에크모 치료 중 재활치료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인 재활 연구 국제 저널(IJRR) 최근호에 게재됐다.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약물이나 인공호흡기 등 다른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계 순환 보조 장치이다. 코로나19 감염 후 호흡 곤란이나 심인성 쇼크, 중증 심

부전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내과가 협업해 에크모를 시행 중인 환자 중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13.9일 시행하는 에크모 적용 기간을 8일로 단축했다. 특히 중환자실 입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력이 손실되면서 신체 기능 저하를 겪는 부작용을 호전시켜 일상생활로 복귀를 앞당겼다.

논문 교신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는 “환자들의 조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감염력이 있는 시기부터도 적극적 재활치료를 시행한다면 예후 향상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휴젤 황정욱 CFO 겸 부사장 선임

글로벌토탈메디칼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황정욱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사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황 선임 부사장은 28년간 다양한 산업계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로, 휴젤에서 재무회계와 더불어 SCM(공급망 관리) 운영,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등 경영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황 부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런던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을 밟았다.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액센츄어 코리아에서 전략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휴플러스, 공차 영국 법인 등에서 CFO를 역임했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2일 (금)
음력: 8월 7일

수도권 날씨
20~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3 | 해질 / 19:00

연천 16/29, 동두천 17/29, 가평 15/28, 파주 16/29, 서울 20/30, 양평 17/28, 인천 21/29, 수원 19/29, 용인 19/29, 평택 17/29, 백령도 19/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